

시론



김선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오월의 광주는 해마다 같은 달력 위에 돌아오지만, 결코 같은 얼굴로 오지 않는다. 익숙한 계절 속에서도 기억은 매년 새롭게 깨어난다. 부드러운 바람 사이로 오래된 목소리들이 겹쳐 흐른다. 우리는 그것을 또렷이 듣지 못하면서도 분명히 느낀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무게가 마음을 붙든다. 그래서 오월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질문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 그 멈춤 속에서 기억은 다시 현재가 된다.

한 도시가 역사가 되는 순간은 사건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일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려 할 때, 역사는 비로소 시작된다. 오월의 광주는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평범한 이웃이 비범한 용기를 내었던 순간이었다.

그날은 고통 속에서도 존엄이 빛났던 자리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연대와 신뢰의 온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기억은 지금도 살아 우리 곁에 머문다.

“자유는 책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18세기 프랑수아 장 자크 루소

이 말은 오월의 광주를 지나 오늘의 우리에게 이어진다. 자유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종종 그 배경을 잊고 살아간다. 그

오월의 기억, 통합의 선택

리나 잊혀진 자유는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기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 된다. 오월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조용히 일깨운다.

다가오는 통합의 선거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일 것이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지만 다루는 방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쉽게 옳고 그름을 나누려 한다. 그러나 통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이뤄진다. 그 과정은 이해와 인내로 채워진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20세기 독일, 한나 아렌트

이 문장은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한다. 오월의 시민들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였다. 그 마음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 오늘의 우리는 그 감각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선거는 선택이지만 동시에 공감의 시험이다. 공감 없는 선택은 오래 가지 못한다.

선거를 앞둔 시간은 늘 소란스럽다. 수많은 목소리가 서로를 향해 부딪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다. 민주주의는 듣는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큰 목소리가 항상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다. 조용한 목소리 속에 더 깊은 뜻이 담기기도 한다. 우리는 설득보다 이해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 태도가 통합의 방향을 만든다.

광주의 기억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나누는 데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편을 가르는 말은 관계를 쉽게 끊어낸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이해의 과정이다.

불편함을 넘어야 진정한 성장이 있다. 통합은 작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오월은 그 첫 걸음을 요구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20세기 스페인·미국, 조지 산타야나

이 문장은 기억의 이유를 분명히 한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을 배운다. 또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도 깨닫는다. 오월의 광주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더 신중해진다. 기억은 곧 미래를 향한 방향이다.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 나무들은 말없이 자라난다. 그 안에는 긴 시간의 축적이 담겨 있다. 바람과 비를 견뎌낸 시간이 지금을 만든다. 민주주의 또한 그러한 시간 위에 선다. 보이지 않는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빠른 결과를 원한다. 그러나 변화는 서서히 깊어진다. 그 느낌 속에서 공동체는 단단해진다.

우리는 종종 빠른 결론을 원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답하지 않는다. 오월의 광주는 과정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다. 민주주의는 듣는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큰 목소리가 항상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다. 조용한 목소리 속에 더 깊은 뜻이 담기기도 한다. 우리는 설득보다 이해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 태도가 통합의 방향을 만든다.

이제 다시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지나가도 울림은 남는다. 오월의 광주는 우리 안에 머문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건넨다.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社說

지방선거 경선 마친 민주당 성난 호남민심 직시하길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적 정치 구조 속에서 경선 자체가 사실상 본선 역할을 한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은 ARS 여론조사 오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결선 투표에서 전남지역 거주자로 응답한 대상자 2천308명의 전화가 중도 종료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통해 “즉시 발신을 중단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투표를 재개했다”며 문제제기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반박 등으로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둘러싼 갈등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여수에선 권리당원 14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으며, 순천의 경우 최종 후보자와 관련된 금품수수, 무안에서는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화순과 장성에선 일부 주민들의 대리투표 정황이 드러났다.

광역·기초의원 공천 역시 일관적이지 않음에도 여전히 시끄럽다. 민주당은 광주 광역의원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 4곳을 대상으로

패자부활전 성격의 2차 경선을 진행해 눈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읍무준전 전역, 공무원 폭언, 정치자금법 위반, 성 비위 의혹 등에 연루된 인사를 경선 과정에서 거르지 못했거나 공천장을 주면서 발집 수신통 혼란스럽다.

탈락자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많았고, 민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부실한 검증은 물론이고 불공정한 감감에 경선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예비후보 투표결과 득표율, 심사 기준, 재심 판단 근거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등 폐쇄성으로 인해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경선을 무효로 하고, 후보 사퇴까지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심상찮다. 시민단체는 통합특별시장 경선 결과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의 텃밭이다.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이제 시작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은 과반을 일으키겠다며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갖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기득권 정치의 폐해를 우려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 최초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4년의 성과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운영하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22년 5월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138명이 찾았다. 연령별로 20대가 64명, 30대 38명, 10대 22명, 40대 9명 순이었다. 은둔의 계기는 대인관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 학교폭력, 취업 실패, 가정 내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019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문을 연 센터는 생활습관 및 대인관계 개선, 일경험·취업 연계, 동아리(자조모임) 활동 등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역시 전국 최초의 일이었다. 2020년 제1차 실태조사를 통해 349명을 발굴하기도 했다. 4년이 지났고, 그 효과는 빛나고 있다.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한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가족마저 심리적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동체의 문제다. 은둔을 시작하게 된 연령 또한 20대와 10대가 많다고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단허버린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한다. 청소년과 청년은 물론 중장년 나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은둔 요인별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포함해 그 누구나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단발성이 아니다. 발굴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계별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취약 청년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적극행정의 사례로 평가받는 것이다. 관심 있는 전국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통했다. 조금씩 웃고 말도 하기 시작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다. 사회와 연결을 돕는 섬터 역할을 함으로써 은둔 탈출을 원하는 당사자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만들어낸 큰 변화다.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확실한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기고



오민수 함평군 변영회장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지는 5월, 우리 함평은 나비들의 화려한 군무 속에 제2회 함평 나비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나비축제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5월4일, 제8회 함평군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군민의 날은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우리 함평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군민들의 웃음소리와 축제의 환호성이 가득한 현장을 지킬 때면, 필자는 성대한 축제의 열기 너머에서 묵묵히 자신의 내일을 일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함평군 변영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스스로 다짐했던, ‘변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지표나 수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겼다. 진정한 변영은 사람을 키우고, 그 마음과 마음을 잇는 나눔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군민들이 필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바쁜 일정 중에 왜 굳이 시간을 내어 학

‘함평군민의 날’에 다시 새기는 각오

생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느냐는 말이다. 그때마다 대답은 늘 동일하다. 서류 한 장, 성적표 한 줄에는 결코 담기지 않는 아이들의 삶의 무게와 그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망울을 직접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낮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한 아이들의 좁은 공부방,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부모님의 거친 손등, 그리고 수줍게 꺼내놓는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필자는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큰 배움을 얻는 학생이 된다. 올해도 스무 명의 학생을 직접 만나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다. 이것은 ‘네 뒤에는 항상 함평이라는 든든한 우리 고장과 너를 믿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가 약속되어야 한다.

변영회장 취임 이후 사비로 장학금을 기탁하고, 행사 예산이 닿지 않는 부족한 구석구석을 제 개인의 정성으로 채워 넣는 과정을 보며 주변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단 한 순간도 이것을 ‘희생’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함평의 변영을 위해 앞장서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마음의 세금’이자, 나를 키워준 고장 함평을 향한 저만의 ‘진심 어린 헌사’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나비의 날갯짓에 온 세상이 감탄할 때, 필자는 그 날갯짓의 시작이 될 우리 아이

들의 꿈에도 축제의 환한 조명을 나눠주고 싶었다. 축제의 뜨거운 열기가 일회성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지탱하는 지속적인 동력이 되길, 또한 예산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조금이라도 반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이게 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 우리 공동체의 빈 곳을 메우고 인재를 세우는 힘을 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쁘기어서, 또 지역 리더로서 보람찬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변영은 혼자 앞서나가는 질주가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뒤쳐진 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동행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전하는 작은 정성이 마중물이 돼 우리 함평군의 인재들이 훗날 거목으로 성장해 다시 우리 고장의 너른 그늘이 되어주는 선순환의 역사를 꿈꾼다. 나비가 허물을 벗고 날아올라 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듯, 우리 아이들도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함평의 미래를 밝히는 주역이 되길 소망한다.

제8회 함평군민의 날은 우리 군민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서로를 보듬고 아끼는 따뜻한 정이 흐르는 함평,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희망의 함평을 위해 저 오민수 또한 변영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민으로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함평의 위대한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뜨거운 온기 속에 이미 시작됐다.

독자투고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에 불안과 유류세 변동 등으로 민생 경제의 피로가 높아지면서 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식당이나 카페를 대상으로 하던 이른바 노쇼사기가 최근에는 주유소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범행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은 지자체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유류세 문제 등으로 정부에서 주유소를 예외주시하고 있다’ 또는 ‘조만간 소방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대비 차원에서 특정 소방 용품을 비치해야 한

교묘해진 ‘신종 노쇼 사기’ 각별한 주의 필요

다라고 업주를 기망한다. 단순히 물품 비치를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지정하는 가짜 유통업체를 알선하여 물품대금을 가로채는 것이 이들의 핵심 수법이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운영자와 관계자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공공기관은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낯선 계

좌로의 급박한 송금 요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가 갈수록 날로 지능화, 교묘해지고 있는 범죄자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심리를 파고든다. ‘설마 내가 당할 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언제든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탐 흘려 버리는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파멸처럼 범죄로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대서양 크루즈에서 한타바이러스 발생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마리아나 벵 케르크호베 WHO 전염병 대응 국장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최초 환자가 크루즈선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타액 등에 노출돼 전염되는 감염병이지만, 드물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WHO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는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다우스’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확진 및 감염 의심 사례는 총 7건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and their respective phone numbers and addresses.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